

북한 인프라개발 자원 조달 방안은?

위험관리방안 마련 핵심... 北도 위험 분담해야 정치적 위험에 대한 구체적 관리방안 마련 필요

북한 내 인프라 개발 과정에서 민간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위험관리 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해 추진주체인 북한의 적극적인 위험 분담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 내 인프라개발 추진시 민간재원 조달 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최근 남북, 북미간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이 대북제재 해제 및 경제협력 단계로 이어질 경우 관련 자금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우리 정부의 재정부담 경감과 지속 가능한 북한개발을 위해서는 국제사

회로부터의 민간재원 조달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초기 국제사회로부터의 무상원조, 양허성 차관 등 ODA(공적개발원조)를 기대할 수 있으나 북한 인프라 전반의 낙후수준 등을 감안할 때 역부족하다는 판단이다.

북한 내 인프라 개발과 관련해 현재 남북협력기금상 '사회간접자본시설 자금대출' 제도가 존재하나 소요재원 추정규모 등을 감안할 때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인프라 개발에 주로 활용되는 프로젝트 금융 방식의 경우 위험관리방안 마련이 핵심이다.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대주는 안정적인 상

환재원 확보를 위한 사업성은 물론 상환 가능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위험관리방안을 요구하게 된다.

건설, 운영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측정하고 각 위험에 대한 충분한 완화능력을 갖춘 사업 참여자가 해당 위험을 분담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업 중단시에도 정부 혹은 주무관청이 해지 지급금을 통해 대주의 원리금 상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북한 내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각종 위험의 측정 및 완화능력을 갖춘 사업 참여자간 위험 분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큰 북한 내에서 이뤄지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 중단 등에 대비한 위험관리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북한 내 인프라 개발 프로

젝트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업 추진주체인 북한의 적극적인 위험 분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철도, 도로 등 인프라 개발 관련 토지사용료의 자본금 출자 및 해당 출자금 우선 집행 등 북한의 능동적인 참여 유도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위험이 큰 국가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등을 활용하지만 북한의 경우 이를 통한 정치적 위험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국제금융시장 편입 이후에도 실제 보증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사업 구조화시 정치적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통해 대주의 원리금 상환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LG유플러스가 12일 전국 영업 매장과 공식 온라인몰 'U+Shop'에서 카카오톡프렌즈폰을 단독 출시한다.

LGU+, 카카오톡프렌즈폰 단독 출시

배경화면·폰케이스에 친숙한 카카오톡 캐릭터 입혀 실시간 위치조회 눈길... 유해 콘텐츠 사전 차단

LG유플러스가 12일 전국 영업 매장과 공식 온라인몰 'U+Shop'에서 '카카오톡프렌즈폰'을 단독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카카오톡프렌즈폰'은 리틀 라이언, 리틀 무지 등 친숙한 카카오톡 캐릭터 8종을 배경·잠금 화면, 아이폰, 케이스 등에 적용한 어린이용 휴대폰이다.

'삼성전자 갤럭시S7'의 안드로이드 성능을 기반으로 실시간 위치 조회, 유해 앱 사전차단 기능 등을 제공한다.

가장 눈에 띄는 기능은 실시간 위치 조회다. 부모는 보호자용 앱을 통해 자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위치 조회

시 자녀의 전면카메라를 동작시켜 주변 상황을 살펴보는 것도 가능하다.

자녀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사전 차단하는 제어·관리 기능도 주목할 만하다. 보호자가 '카카오톡(삼성 키즈모드 기반)' 앱을 실행하면 자녀는 허용된 앱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으며, 통화·문자 등의 기능도 제한 받고, '청소년 스페셜' 요금제를 통해 합리적인 이용이 가능하다.

'청소년 스페셜'은 월 정액 3만 2800원(VAT 포함)으로 유·무선 음성통화, 문자, 데이터 750MB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요금제다.

/김영태 기자

은행권 원화대출 연체율 0.17%p ↑

성동조선해양 회생절차 개시 신청 등으로 신규연체 3.5조원 발생 금감원 "분기말 정리효과 소멸... 신규 발생추이 지속 모니터링"

국내 은행권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상승했다. 분기말 연체율도 정례효과가 소멸된 데다 신규연체 재권이 크게 늘면서 1년 반여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59%로 전월말(0.42%)에 비해 0.17%p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16년 11월말 이후 1년 5개월 만의 최고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도 0.05%p 올랐다.

이달 연체율은 3조5000억원이 새로 생기고 8000억원이 정리돼 총 2조 7000억원이 증가했다. 연체채권 잔액은 9조원이다.

이달 신규로 발생한 연체채권 규모는 전월(1조2000억원)보다 2조3000억원이나 크게 늘었다. 지난 3월 성동조선해양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으로 신규연체가 2조2000억원 발생한 탓이다. 그밖에도 분기말 정리효과가 소멸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통상 은행들은

분기말 실적 공시에 맞춰 연체채권을 신경써서 정리한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27%로 전월보다 0.02%p 올랐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0.01%p 내렸다. 이중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19%로 전월보다 0.01%p 상승했다.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0.46%로 같은 기간 0.06%p 올랐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86%로 전월 대비 0.3%p나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도 0.1%p 오른 수치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이 1.31%p 오른 1.76%를 나타냈고 중소기업대출은 0.05%p 오른 0.64%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연체를 증가시키는 요인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본다. 또 대부분 분기말 정리효과가 소멸된 탓에 가인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다만 향후 시장금리 상승 등에 따른 연체 증가에 대비해 신규연체 발생추이에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포토라인에 다시 선 이명희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명희 전 이사장은 필리핀 국적 10여명을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 핵심 전문가 선정 과학기술 수준 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의 기술수준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핵심 전문가 1200명을 선정하고 기술수준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기술수준평가를 개선해 평가의 전문성, 일관성, 객관성, 활용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매 평가마다 불특정 다수 전문가가 참여함에 따라 기술수준 평가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2018년 평가부터는 이전 평가와는 달리 5년 임기의 기술 분야별 핵심 전문가를 선정해 참여 전문가의 전문성과 평가의 일관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핵심전문가 후보단 구성을 위해 연구개발 주요부처 및 과학기술 관련단체 추천, 전문가 상호추천, 자기추천 등을 진행했다.

전문성, 추천횟수, 산학연 비율 등을 고려해 중점 과학기술별로 10명씩 총 1200명의 핵심전문가를 선정할 방침이다.

최종 선정된 핵심전문가는 향후 5년간 명예직인 기술수준평가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및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명단이 공개된다.

이때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상호 추천 등을 통해 선정된 핵심전문가가 기술수준을 평가해 평가의 전문성, 신뢰도, 일관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술수준평가 과학기술정책 수립 및 R&D 기획 등의 중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주 52시간 근무, 건설 현장 총공사비 평균 4.3% ↑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시 건설 현장의 총 공사비가 평균 4.3%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건설 정책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37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총 공사비 평균 4.3%(최대 14.5%), 직접 노무비 평균 8.9%(최대 25.7%), 간접 노무비 평균 12.3%(최대 35.0%)가 늘어났다.

기업 입장에서 총 공사비 증가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 1인당 임금을 삭감하는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현재 대비 임금 감소 비율은 관리직 13.0%, 기능 인력은 8.8%로 나타났다.

최근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은 지금까지와 비교했을 때 단축되는 폭이 가장 크지만 단계별 적용 시간은 가장 짧아 인력 수급 문제, 인력 증가로 인한 인건비 상승 문제 등이 단기 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됐다.

지난 4월 10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76.1%가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애로 사항이 무엇인지는 질문에 '공사 기간 및 공사비 증가'가 1순위, '공사비 증가에 의한 경영 상태 악화'가 2순위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발주기관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반영한 적정공사비 책정'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 반영'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일본의 경우 초과 근무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시간 외 노동에 대한 상한을 설정했다. 건설업은 단기간의 적용보다는 5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주면서 발주자와 사용자 모두 시간 외 노동 규제가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태 기자

대형TV 판매 35%늘어

롯데하이마트는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대형 TV의 판매량이 직전해 같은 기간보다 35% 늘었다고 밝혔다.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앞두고 대형 TV의 판매가 증가하는 추세가 재연된 것이다. 실제로 롯데하이마트에서는

최근 수년간 런던올림픽, 브라질월드컵, 리우올림픽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앞두고 대형 TV의 매출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대형TV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롯데하이마트는 7월2일까지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제조사의 TV를 최대 20% 할인판매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김영태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